

# 2020년 4/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0. 9

창원상공회의소

##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0. 8. 26 ~ 9. 15(휴일제외 15일 간)
- 분석대상 : 126개 응답업체 (표본 제조업체 239개)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수출기업	내수기업
매수	23	103	35	91
비중	18.3	81.7	27.8	72.2

	업종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금속	기타 운송장비	기타
매수	22	29	28	24	14	9
비중	17.5	23.0	22.2	19.0	11.1	7.1

### 3. 조사내용

- 기업체감경기 현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II

## 요약

- 창원 제조업의 체감경기지수(BSI)가 4분기에도 기준치를 크게 하락한 '51.6'으로 조사되어 14개 분기 연속 기준치 하락을 보였음. 3분기 실적BSI도 '50.8'로 낮은 수준의 지수를 나타냈음. 전 업종의 전망BSI가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기업유형별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이 4분기 경기를 현 시점보다 어렵게 내다보고 있음.  
지난 분기 경기전망 조사에서 3분기 전망과 2분기 실적 BSI가 각각 '39.5', '23.5'로 역대 최저치를 보인 것과 비교해 지수의 상승이 다소 이루어졌음. 또 지난 2분기에 조사한 3분기 전망치(39.5)보다 다소 높은 실적치(50.9)를 보여, 2분기 말 당시 공포수준의 전망보다는 다소 완화된 실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실적 악화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그 속도는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보임.
- 응답업체(창원 제조업체)의 37.3%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 미만', 22.2%는 '-2.0%~-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이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이 발표한 '-1.1%~1.0%' 수준보다 낮은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연초 계획했던 경영상 목표치 미달로 비상경영으로 전환하는 업체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 경비절감과 생산량 조정 등 기업 내부의 활동성 축소를 통해 사업 유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응답업체 86.5%,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에 미달했다' 응답
  - 응답업체 48.4% '비상경영으로 운영 중', 22.2% '비상경영 전환 예정', '정상경영 중'(29.4%)인 업체의 45.9%는 올해 말까지 유지 가능
  - 대응책 선택 비율, '경비절감'(73.8%), '생산 및 가동률 축소'(61.1%), '현금 유동성 확보'(44.4%),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구조 개편'(18.3%)
  - 한국판 뉴딜정책 성공을 위한 보완책 선택 비율은 '근로형태 다변화 지원'(56.3%), '정책의 연속성 보장'(46.0%), '금융, R&D 지원 강화'(45.2%), '구시대적 법 제도 확산'(43.7%), '첨단사업분야 인력 양성'(18.3%)

### Ⅲ

## 2020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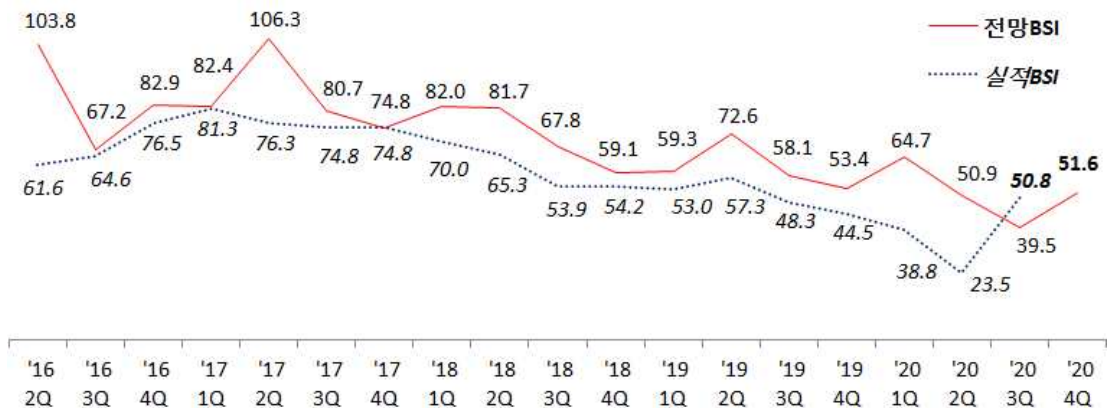
### 1. 창원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0년 4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51.6'로 조사되었음. 지난 분기 '39.5'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4분기도 어두운 전망치를 보이면서, 경기전망지수가 14개 분기 연속 기준치 하락을 나타냈음.

○ 2020년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나타난 실적BSI는 '50.8'로 조사되었음. 2분기 실적지수 역시 지수 산출 이래 가장 낮은 '23.5'를 기록한 이후 3분기에도 기준치를 밑돈 결과를 보임.

하지만, 지난 2분기에 전망한 3분기 전망치인 '39.5' 보다는 높은 수준의 실적치인 '50.8'을 기록했음.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산업 생산 및 매출 감소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란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했던 2분기 말 당시의 공포수준의 전망보다는 다소 완화된 실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됨. 하지만 절대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실적을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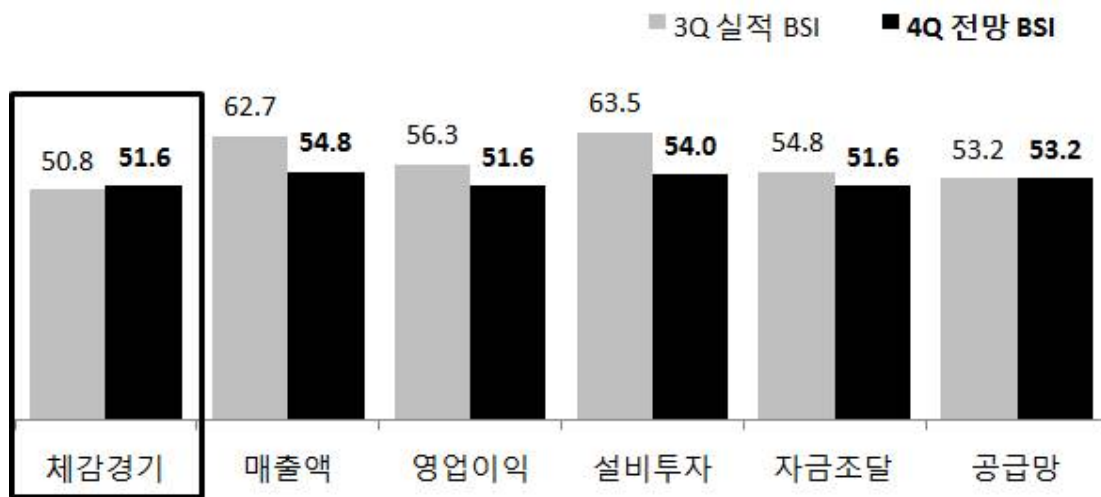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 2. 항목별 전망

- 4분기 체감경기 전망BSI가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가운데, 매출액(54.8), 영업이익(51.6), 설비투자(54.0), 자금조달(51.6), 공급망(53.2) 등 항목별 전 부문의 기준치도 낮은 수준을 보였음.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 조사항목별 전망치를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금조달 분야는 각각 '54.8', '51.6', '51.6'으로 전분기 대비 긍정적인 전망이 늘었으나, 설비투자는 '54.0'으로 전분기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이 커짐.
- 이번 조사시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영업환경이 위축되었던 시점임에도 둔화 속도가 완만해진 것은 지난분기 경험으로부터 대응방안을 점진적으로 찾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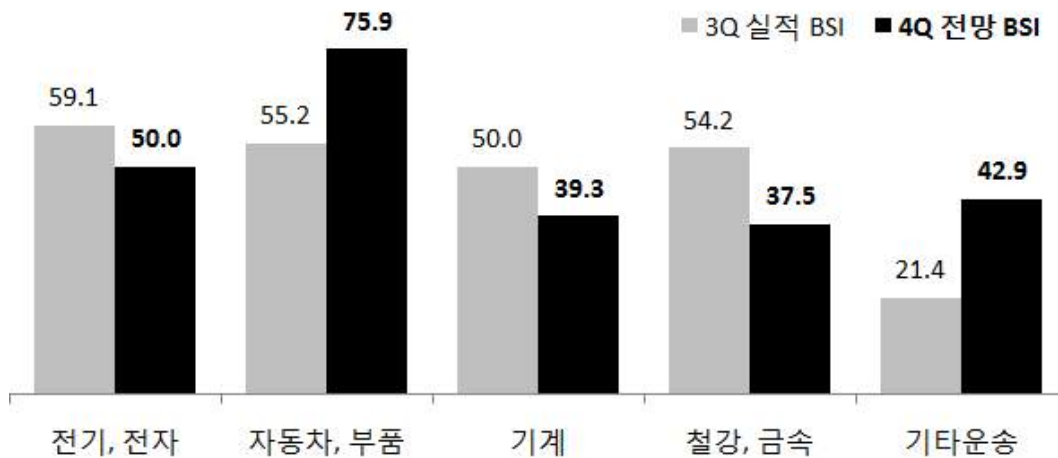
3분기 전망 대비, 4분기 전망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조달
3분기 전망 (2분기말 조사)	39.5	44.5	44.5	57.1	43.7
4분기 전망 (3분기말 조사)	51.6	54.8	51.6	54.0	51.6

### 3. 업종 및 기업유형별 전망

- 업종별로 전망BSI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부품’(75.9), ‘전기, 전자’(50.0), ‘기타운송장비’(42.9), ‘기계장비’(39.3), ‘철강, 금속’(37.5) 등 전 업종에서 기준치를 하회하였음.
- 실적BSI도 ‘전기, 전자’(59.1), ‘자동차 및 부품’(55.2), ‘철강, 금속’(54.2), ‘기계장비’(50.0), ‘기타운송장비’(21.4) 등 전 업종에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음.

업종별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 규모별로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이하 대기업)과 300인 미만(중소기업)의 실적 지수는 각각 ‘52.2’, ‘50.5’로, 전망지수는 ‘56.5’, ‘50.5’로 조사되었음. 기업유형별로 실적 및 전망 BSI를 살펴보면 수출 중심의 기업과 내수 위주의 기업의 실적치가 각각 ‘37.1’, ‘56.0’, 전망지수는 ‘42.9’, ‘54.9’를 기록했음.
- 모든 기업군에서 4분기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그 정도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큰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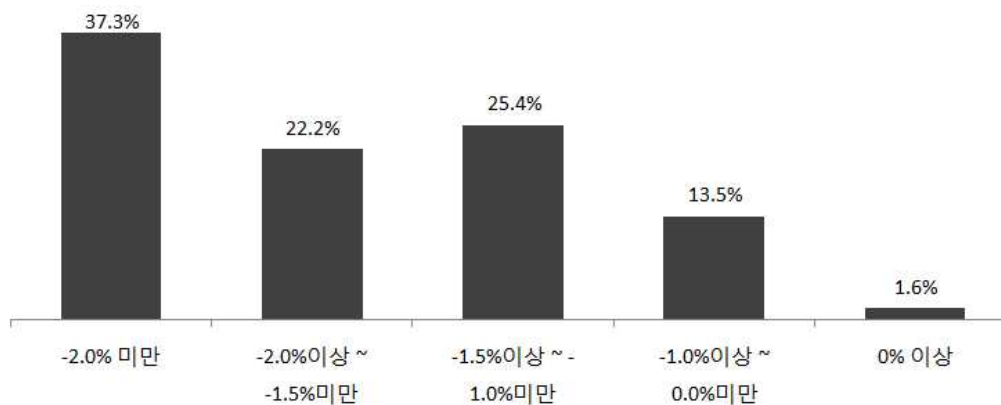
- 국내는 물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기존의 악재에 더해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이 겹쳐 빚어진 글로벌 교역량 급감과 비즈니스 접촉 애로가 수출중심인 창원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이는 1차적으로 수출기업에 이어 내수기업으로 확대 심화하고 있음. 더욱이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추세도 수출기업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4.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n=126)의 37.3%가 -2.0% 미만을 기록할 것이라 답했음. 이어 '-2.0%~-1.5%' 22.2%, '-1.5%~-1.0%' 25.4%, '-1.0%~0%' 13.5%, '+성장' 1.6%로 답했음.

응답업체의 한국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n=126)



- 응답업체(창원지역 제조업체)의 98.4%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대체로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치(-1.0%~-1.1%)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

기관별 한국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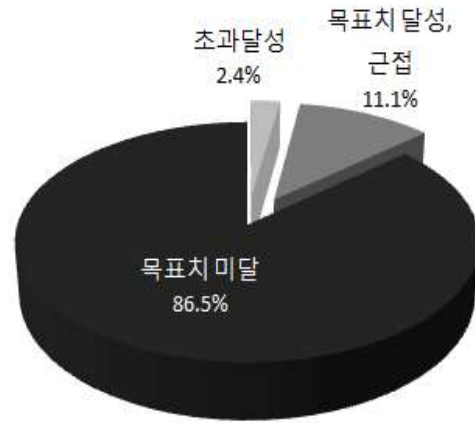
발표기관	피치	한국개발연구원	OECD
전망치	-1.1%	-1.1%	-1.0%
발표일	9월 8일	9월 8일	9월 16일



## 5. 실적(영업이익) 목표치 달성 및 정상경영 유지 여부

○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와 비교해 현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86.5%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음. 이어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근접했다’ 11.1%,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2.4%로 답했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업체의 16.2%는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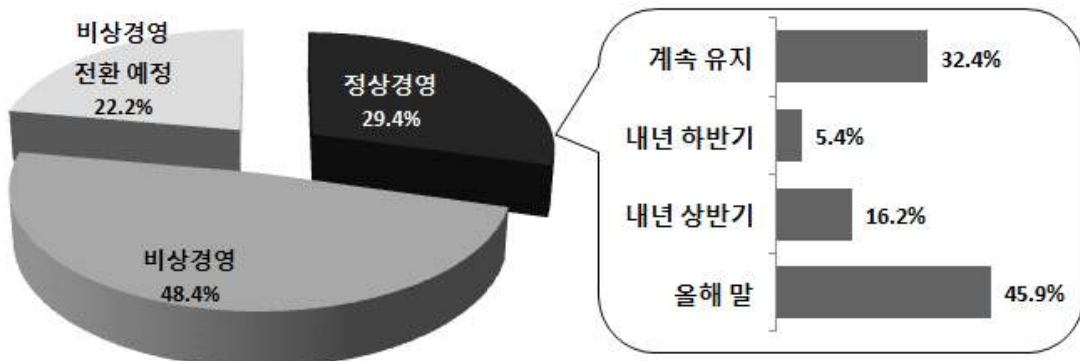
실적(영업이익) 목표치 달성 여부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에 따라 현재 정상경영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8.4%가 ‘이미 비상경영으로 운영 중이다’, 22.2%는 ‘비상경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답했음. ‘정상경영으로 운영 중이다’고 응답한 비중은 29.4%임.

정상운영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언제까지 이를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묻은 결과, 45.9%가 ‘올해 말’이라 답했음. 이어 ‘내년 상반기’ 16.2%, ‘내년 하반기’ 5.4% 순으로 답했고, ‘계속 유지’로 답한 비중도 32.4%를 차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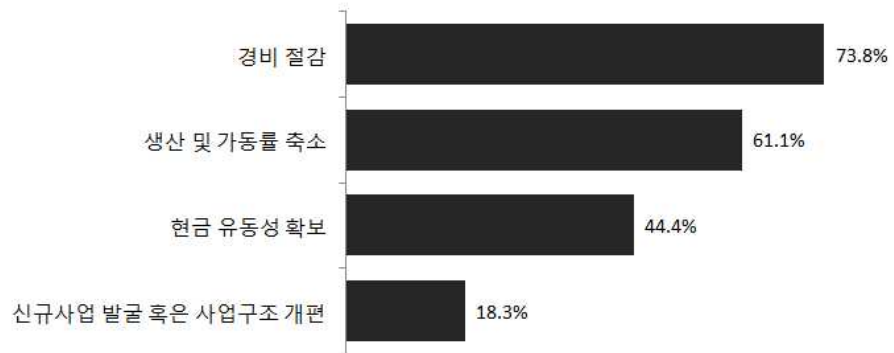
정상경영 유지 여부와 지속 가능 시기



## 6. 코로나19 영향 장기화에 따른 대응

-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영향이 장기화할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경비 절감’ 73.8%, ‘생산 및 가동률 축소’ 61.1%로 응답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응답했음. ‘현금 유동성 확보’를 꼽은 비율은 44.4%,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구조 개편’은 18.3%임. 코로나19의 영향이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짐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이나 구조개편 등의 대응보다는 경비와 생산량 조정 등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유동성 확보를 통해 안정성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풀이됨.

코로나19 영향 장기화 시 대응방안별 응답비율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근로형태 다변화 지원’을 과반수 이상인 56.3%가 지목했음. ‘해당 정책의 연속성 보장’은 46.0%,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R&D지원 강화’ 45.2%, ‘구시대적 법 제도 확산’ 43.7%가 꼽았음. ‘첨단사업분야 인력 양성’은 18.3%만 지목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병행되어야 할 정책

